

사회자본과 공중보건의 위기관리*

Social Capital and Crisis Management of Public Health

Sang Weon Kim**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Dong-Eui University, 176 Eomgwangno, Busanjin-gu, Busan, Korea

Abstract

Relying upon recent social science and public health science literature on social capital theory, this study tested the hypotheses that areas with higher levels of social capital and social support will have lower mortality rates. Korea is a member of OECD with moderate mortality rates. Although its overall mortality is the lower rank among the OECD members, local rates of mortality vary widely. Similarly, the level of social capital provided by local government varies throughout Korea due to the level of development and financial condition. Utilizing data from Korean regions(n=229) and controlling for other structural covariates, Ordinary Least Squares(OLS) regression was employed to estimates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regional mortality rates. As expected, the results provided some partial support for direct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mortality. The findings showed that regions exhibiting high level of social capital and social support were regions with lower level of mortality rates. The findings are discussed in the social context of Korean regional specific conditions and of the meaning of recent research of social capital and mortality.

Key words: social support, social capital, public health, mortality rates

국문초록

시민의 건강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사회는 복지적 측면에서 후진적 사회로 간주된다. 지역주민의 공중보건을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나 그에 속한 결사체 혹은 지방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3A-2043223).

** Tel. +82-51-890-2194. Fax. +82-51-890-2609. E-mail. sangkim@deu.ac.kr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Nov. 6, 2014 / Revised: Dec. 7, 2014 / Accepted: Dec. 14, 2014

정부, 나아가 국가와 같은 다양한 조직체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보다 구조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최근의 거시적 연구 주제들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혹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과 공중보건의 관계에 대해 지역을 분석단위로 사용하여 경험적 연구를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의 지역(기초자치단체, n=229)을 분석단위로 사용하여 사회적 지원이나 사회자본이 지역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우선 첫 번째 연구가설은 사회적 지원이나 사회자본이 많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의 사망률은 낮을 것이라는 가설이었다. 분석결과에서 일부 사회적 지원변수와 사회자본 변수가 사망률과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연구가설은 사회적 지원은 사회자본과 독립적으로 그 지역의 사망률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이었다. 모델측정 결과, 애초에 사망률에 영향을 주었던 사회적 지원변수들은 사회자본과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사망률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두 번째 가설은 지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을 종합해볼 때, 사회적 지원과 사회자본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이 연구의 결과에 기초해보면, 지역공동체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물리적 형태의 사회적 지원의 정도와 지역공동체의 가족 내 사회자본이 지역주민의 공중보건 관리에 효과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주제어: 사회적 지원, 사회자본, 공중보건, 사망률

I. 머리말

시민의 건강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사회는 복지적 측면에서 후진적 사회로 간주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중보건이나 사회의 안전을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보고 이러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결국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 사회나 그에 속한 결사체 혹은 지방정부, 나아가 국가와 같은 다양한 조직체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고민의 결과에서 공중보건의 위기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다 구조적인 연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최근의 거시적 연구 주제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혹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공중보건과의 관계에 대해 지역을 분석단위로 사용하여 경험적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외국에서는 사회적 지원이나 사회자본이 공중보건을 위한 중요한 대책중의 하나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이와 관련한 경험적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적 수준에서의 공중보건 대책의 한 예로서 사회적 지원의 정도나 사회자본이 얼마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도 의미가 있는 일이며, 미래의 사회정책과 관련해서도 매우 유용한 연구 작업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적은 편이며, 특히 이와 관련한 거시적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거시적 연구차원에서 한국의 지역별 사회적 지원의 정도, 그리고 사회자본과 지역별 공중보건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시도하는 본 연구는 거시적 차원의 사회정책적 전략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사회적 지원과 사회자본이 지역의 공중보건

문제에 가지는 정책적 효율성을 검증하는 경험적 연구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공중보건과 관련한 연구에서 외국에서는 사회적 지원이나 사회자본의 영향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연구가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군다나 많은 선진 국가들이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 공중보건과 관련하여 지역의 사회적 지원이나 사회자본이 지역 인구의 건강에 효과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져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한국의 지역(regions)을 분석단위로 사용하여 사회적 지원이나 사회자본이 지역주민의 사망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의 문헌에 기초해 볼 때 지역의 사회적 지원과 사회자본의 정도는 지역별 사망률과 부(-)적 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사회에서도 지역의 사회적 지원이나 사회자본의 정도에는 변이(variance)가 있을 것이고, 또한 지역에 따라 사망률에서 다양한 변이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두 변수의 변이들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지역단위의 사회적 지원과 사회자본에 관한 통계지표를 사용하여 지역의 사회적 지원과 사회자본이 그 지역의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것이다. 이 연구 분석의 결과에서 지역의 사회적 지원이나 사회자본이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지역주민의 공중보건에서의 위기관리를 위한 사회정책의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지원의 정의와 이론

1) 사회적 지원의 정의

사회적 지원은 학자들에 따라 그 정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대체로 다양한 자본이나 지원, 프로그램이 사적 혹은 공적 기관을 통해 전체 혹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어떤 연구자들은 이것을 지원의 주체가 사회연결망, 이웃공동체, 혹은 정부인가, 아니면 배우자, 가족구성원, 친구와 같은 사적 지원인가에 따라 다르게 구분하려고 시도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은 정부의 공식적 사회프로그램, 지역공동체, 사회연결망, 가족, 혹은 사적 관계들을 통해 제공 되어질 수 있는 인식적(perceived)인 혹은 실질적인 도구적(instrumental) 공급들을 일컫는 용어이다(Chamlin & Cochran, 1997; Cullen, *et al.*, 1999; Lin, *et al.*, 1986). 사회적 지원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대표적 학자인 켈렌(1994)은 사회적 지원을 미시적 지원과 거시적 지원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미시적 지원은 주로 배우자나 가족구성원, 혹은 가까운 친구로부터 제공 되어질 수 있는 지원을 의미하는 반면에, 거시적 지원은 사회연결망, 이

웃과 같은 공동체, 혹은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거시적 지원의 형태인 지방정부로부터의 지원(state support)을 의미하는 사회적 지원으로 한정짓고 지역을 분석단위로 하는 거시적 연구를 수행하려고 한다. 이 연구의 문제의식이 지역의 사회적 지원이나 사회자본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 지원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다. Lin, *et al.*(1986: 18)은 “공동체, 사회연결망, 신뢰하는 파트너 등으로부터 제공 되어지는 인식적, 혹은 도구적 차원의 공급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Cullen, *et al.*(1999: 190)은 사회적 지원을 “다양한 형태의 자본의 형태-인적, 문화적, 사회적, 물질적-가 전달되는 과정”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Chamlin & Cochran(1997: 204)은 “공동체가 그들의 구성원의 도움과 위안을 위해 희소자원을 기쁘게 주려는 의지”라고 정의하였다.

2) 사회자본의 정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정의도 다양하며 그에 따른 측정도 다양하다. 먼저 사회학자들의 사회자본에 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본다면, 사회자본에 언급한 대표적인 학자인 부르디외는 사회자본을 “지속적인 네트워크 혹은 상호 면식이나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 즉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되는 실제적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한다(Bourdieu, 2003). 콜먼은 사회자본을 기능에 따라 정의한다. 사회자본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행위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할 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Coleman, 1990: 304). 따라서 콜먼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단일한 실체(single entity)가 아니라 개인적 그리고 집합적 행위를 조장하는 사회구조의 여러 다른 측면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Coleman, 1990). 콜먼은 사회자본을 물리적 자본(physical capital)이나 인적 자본(human capital)과는 구분하려고 하였다. 사회자본이 물리적 자본과 다른 이유는 그것이 물리적 형태를 띠지 않는다는 측면에서이다. 그리고 개인의 자질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자본은 인적 자본과 다르다. 물리적 자본과 인적 자본은 결국 개인에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자본은 개인에게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사이의 관계 속에 묻혀 있는 것이다. 즉 사회자본은 사회적 관계에 내재되어있는 것이다(Coleman, 1990). 린과 동료들도 사회자본의 다양한 의미들은 결국 사회적 응집력, 연대, 그리고 사회해체와 같은 사회학적 개념의 유상들에 중심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Lin, *et al.*, 2001).

콜먼이 주로 개인적 행위자들을 위한 사회자본의 잠재적 이익에 초점을 맞춘 것에 비해 정치학자들은 사회자본을 집합체(예를 들면 마을, 도시, 혹은 국가)의 자산으로 보았다.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정치학자 중의 한 사람인 퍼트남의 경우는 사회자본을 “연결망, 규범, 그리고 신뢰와 같이 상호이익을 위한 행위와 협력을 촉진시키는 사회조직의 특성”이라고 정의한다(Putnam, 1993: 35). 실제적인 측면에서 사회자본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집합체의 두 가지 특성에 관심을 가지

게 되는데, 개인 상호 간에 신뢰(interpersonal trust)의 정도와 시민참여(civic engagement)의 수준이 여기에 해당된다. 신뢰는 사회자본의 대표적 유형으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지역적 범위 혹은 전 세계적인 범위를 포함할 수 있다. 큰 규모의 사회집단에서 사회자본의 효율적인 동원은 사람들이 심지어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기꺼이 신뢰하고 협력하는 정도에 달려있다(Brehm & Rahn, 1997). 후쿠야마는 이러한 신뢰가 ‘자발적인 사회성(spontaneous sociability)’을 증진시킨다고 보고 이것이 사회자본의 가장 유용한 형태라고 보았다(Fukuyama, 1995). 시민참여 또한 사회자본을 만들어낸다. 시민참여는 뚜렷한 목적을 위한 모임에 유용한 조직뿐만 아니라 다른 집합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만들거나 지원함으로써 사회자본을 양산한다(Coleman, 1990). 그리고 이러한 신뢰와 시민참여는 상호 보완적인 경향을 띤다. 시민들이 공동체에 참여를 많이 할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커진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커질수록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참여도 많아진다(Brehm & Rahn, 1997).

2. 사회적 지원과 사회자본에 관한 기존 연구들

1) 사회자본과 공중보건 및 사회문제

지역의 사회자본이 그 지역사회의 공중보건(사망률, 자살률)이나 사회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논의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Kawachi, *et al.*, 1997a; Kawachi, *et al.*, 1997b). Kawachi, *et al.*(1997b)은 미국의 전국여론조사센터(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에 의해 수행된 일반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로부터 사회자본의 지표들을 조사하였다. 이 지표들은 Putnam(1993)의 사회자본 개념을 적용한 몇 가지 설문지 문항에 의해 얻어진 결과들이다. 이러한 사회자본 지표들이 소득불평등과 시민들의 사망률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결과는 소득불평등은 일인당 그룹 멤버십과 강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신뢰의 결핍 정도와는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신뢰정도도 그룹 멤버십은 다시 전체 사망률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국 카와치와 동료들의 연구는 소득불평등이 사회자본의 투자결핍이라는 매개를 통해 사망률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범죄학 문헌에서도 기존 연구들이 사회적 지원이론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옹호하는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있다. 하지만 사회적 지원이론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경험적 연구들은 아직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다. 이 가운데에는 Chamlin & Cochran(1997), Chamlin, *et al.*(1999)의 연구와 Pratt & Godsey(2002; 2003)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Chamlin & Cochran은 사회적 지원 혹은 이타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미국의 대표적 자선단체인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의 도시단위의 ‘공헌도’를 사용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는 도시별 ‘공헌도’의 정도는 재산범죄, 그리고 대인범죄와 유의미한 부(-)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Chamlin & Cochran, 1997). 한편 Chamlin, *et al.*의 다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을 나타내는 변수로 세금정산으로 돌려받은 세금 중에서 기부나 공헌에 쓰인 비율을 사용

하였다. 연구결과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Chamlin, *et al.* 1999). Pratt & Godsey는 국가 간 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원과 살인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들이 사용한 국가의 사회지원 지표는 국가 전체예산에서 건강보건비와 교육비에 배정되는 비율을 사용하였는데, 연구결과에서는 이 지표들이 살인율과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ratt & Godsey, 2002). 그들의 또 다른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원이 경제적 불평등이 국가의 살인율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소시키는 조건변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Pratt & Godsey, 2003). Kim & Pridemore(2005)는 러시아의 89개 행정지역을 분석단위로 사용하여 Pratt & Godsey가 이용한 사회지원 변수와 흡사한 지표인 지역단위에서의 각 지역예산에서 건강보건비와 교육비에 배정되는 비율을 사용하여 지역별 살인율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에서는 사회적 지원지수와 살인율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김상원(2010)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지방정부의 사회적 지원과 자살률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사회자본의 결핍은 범죄를 포함해서 사회문제들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Kawachi, *et al.*, 1997a; Putnam, 1995).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 외국에서는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Messner, *et al.*, 2004; Rosenfeld, *et al.*, 2001). 범죄학 문헌에서 사회자본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는 연구들의 대부분은 Coleman(1988; 1990)과 Putnam(1993; 1995)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우선 콜먼의 사회자본 개념이 사실상 사회학이나 범죄학에서 제일 먼저 원용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콜먼의 사회자본은 범죄학에서 사회통제이론의 전통과 유사하다고 보고 이 개념 사이의 연결을 시도한 연구들이 있는데 이것이 1990년대의 사회해체이론의 새로운 시각을 담은 연구들로 나타났다. Sampson & Laub(1993)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위에서 이들의 연구가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에서 다루는 이웃의 연결망을 통한 상호신뢰와 시민의 자발적 참여라는 개념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지만, 생애과정에서의 범죄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원인으로서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나 사회적 자본에서의 변화를 주장하는 부분은 콜먼의 사회적 자본 개념을 원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존의 청소년기의 범죄경력 소유자도 성인기에 들어와서 결혼이나 직장을 통해 새롭게 혹은 다시 생성된 애착, 즉 사회자본을 통해서 범죄행동을 중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콜먼은 가족 내의 사회자본을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의 강도로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가정에서의 부모들의 실제적 존재 여부, 아이들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가지고 가족 내 사회자본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Coleman, 1988). Bursik & Grasmick(1993)은 사적 통제(private control) 외에도 지역적 통제(parochial control)와 공적 통제(public control)를 추가하면서 지역의 사회조직이 가지고 있는 사회자본의 정도는 지역적 통제를 강화하고, 그 지역 공동체가 외부의 공적 기관으로부터 공적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러한 능력 또한 지역의 사회적 자본의 정도가 결정하게 됨)도 그 지역의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도 역시 콜먼의 사회자본을 활용하여 기존의 사회해체이론을 한층 발전시킨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최근의 연구인 Sampson, *et al.*,(1997)에서 등장하는 ‘집합효율(collective efficacy)’도 사회자본

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핵심 주장은 범죄율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웃의 사회적, 조직적 성격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집합효율’은 이웃들 간의 상호신뢰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웃의 공동선과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에 개입하려는 정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는 사회자본 개념과 매우 유사하며, 집합효율이 범죄를 줄이는데 작용하는 기제(mechanism)도 사회자본이 범죄를 줄이기 위해 작동하는 원리와 흡사하다. 왜냐하면 둘 다 가족, 사회적 연결망, 공동체를 통해 형성된 인적, 문화적, 사회적 자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Putnam의 사회자본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호신뢰와 시민참여가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그의 사회자본 개념도 역시 기존 범죄학이론 중에서 사회해체이론의 이론적 중심축인 비공식적 혹은 공식적 연결망이 갖는 사회통제기능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Putnam은 1960년대 이래로 미국의 범죄율이 상승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로 같은 기간에 걸쳐 나타난 사회적 신뢰의 감소와 연결시키고 있다 (Putnam, 1995). 사회자본은 상호신뢰의 정도와 시민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증가될 것이고(Putnam, 1995), 이러한 조건들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함께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Fukuyama, 1995; Hearn, 1997). 하지만 이러한 사회자본이 결핍되어 있는 지역은 범죄율이 높을 것이라고 보았다. Putnam의 사회자본 개념을 이용한 거시적인 범죄학 연구들도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Messner, *et al.*, 2004; Rosenfeld, *et al.*, 2001). 로젠펠드와 메스너, 그리고 바우머는 최근의 연속적인 연구에서 상호신뢰와 시민참여라는 퍼트남의 핵심적인 사회자본의 두 요소를 가지고 폭력범죄인 살인율과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Messner, *et al.*, 2004; Rosenfeld, *et al.*, 2001). 그들은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하여 일반적 타인들에 대한 신뢰 정도, 투표참여율, 시민단체 참여, 종교 참여, 이웃공동체 참여 등을 사용하였다. 그들의 논의는 Putnam의 사회자본을 역시 기존 범죄학 이론 중에 사회해체이론의 핵심적 요소와 연결시키고 있다. 즉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신뢰와 시민참여의 정도는 범죄감소나 범죄예방과 같은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직, 간접적으로 사회자본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범죄학 관련문헌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2) 심리적 공동체의식

사회자본과 관련해서 공동체 심리학(community psychology)의 영역에서는 심리적 공동체의식(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이라는 개념을 주목시켰다. Sarason(1974)에 의해 만들어진 이 개념을 MacMillan & Chavis(1986)가 보다 발전시켰는데, 이 심리적 공동체감은 네 가지의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멤버십(membership), 영향력(influence), 통합(integration), 공유된 감정적 연결(shared emotional connection)이 여기에 포함된다. 여기서 심리적 공동체의식은 ‘집합적 특성(collective characteristic)’이지 개인의 관계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3) 근린관계와 지역 응집력

공동체의식과 관련이 깊은 개념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 중에서 ‘근린관계(neighboring)와 지역응집력(neighborhood cohesion)’이라는 용어가 있다. 여기서 근린관계(neighboring)의 측정은 정서적(affective)이고 도구적(instrumental)인 지원(support) 형태를 띠고 있는 지역의 동원 가능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지역의 정서적, 도구적 지원은 지역 네트워크와 일상적 상호작용뿐 아니라 지역 내에 존재하는 도구적이고 감정적인 사회적 지원의 이용가능성을 측정하는 것도 포함한다(Unger & Wandersman, 1985). 이러한 측정에는 보통 사회·감정적 지원(socio-emotional support), 도구적 지원(instrumental support), 정보지원(informational support)이라는 세 가지 차원을 측정지표로 삼는 경우가 많다(Unger & Wandersman, 1985). 이러한 접근은 사회자본의 공공재(public goods)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자원은 단지 사회적 관계의 유지를 위해 투자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닌 잠재적으로 사회구조 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사용 가능한 자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서 사용하는 사회적 지원은 앞에서 논의한 사회적 지원과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사회적 지원도 사회자본의 한 구성요소로 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연구를 위한 가설들

위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과 지역의 사회적 지원과 사회자본과 사회적 문제들과의 관계를 연구한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의 논의에 기초해서 이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사회적 지원과 사회자본이 많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의 사망률이 낮을 것이다.

가설 2. 사회적 지원은 사회자본과 독립적으로 그 지역의 사망률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가설들의 검증을 통해 한국사회에서도 지역의 사회적 지원이나 사회자본 사망률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II. 자료와 분석방법

1. 자료와 변수들

이 연구는 횡단적 연구(cross-sectional study)로서 한국의 지역(기초자치단체)이 분석단위가 된다.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는 229개의 시, 군, 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집된 자

료가 통계청 사회통계국에서 최종집계가 된다. 몇몇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료가 통계청자료에서 누락된 경우도 간혹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직접 관할 자치단체와의 접촉을 통해 자료를 얻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교육과 성비변수(2010년 자료)만 제외하고는 모두 2011년이나 2012년 자료들이다. 인구동태학적 자료는 주로 사회통계국의 전산자료를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기초자치단체별 사망률 자료이고, 독립변수는 사회적 지원, 사회자본 변수를 사용되었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적 차이를 감안해서 종속변수는 2012년 자료를 사용하였고, 독립변수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2011년 자료를 사용하였다(자세한 측정방법과 출처는 <표 1>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 외에도 여러 범죄학 문헌에서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온 기타 다른 변수들은 통제변수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학력, 빈곤, 총인구, 인구밀도, 성비, 등이 통제변수들로 사용될 것이다.

1)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사망률이다.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사망률의 증가나 감소는 그 사회의 구조적인 측면과 문화의 역할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Durkheim, 1979; 김상원, 2009). 여기에서도 지역의 사회적 지원과 사회자본이라는 사회구조적인 변수가 그 지역의 사망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지역별 사망률이 될 텐데, 이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 연도(2012)의 통계청 자료에서 얻은 인구동태학적 자료로서, 지역별 사망률을 사용할 것이다. 자료는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의 사망원인통계 자료 중에 2012년의 기초자치단체의 사망률 자료를 이용하였다(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13).

2) 독립 변수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독립변수는 사회적 지원과 사회자본이다. 우선 사회적 지원은 지역별 사회지원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다른 외국의 기존연구에서 빈번히 사용되어온 대로 2011년도의 지역별 예산에서 교육비에 배정된 비율과 문화비 비율, 그리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와 사회보장비에 배정된 비율을 사용하였다.

또 다른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은 지역별 사회적 자본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들로 구성되어지는 데, 여기서는 Coleman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in the family)과 퍼트남의 신뢰정도와 시민참여의 정도를 주요 사회적 자본의 지표로 사용하고자 한다.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한 것처럼 콜먼의 경우 사회적 자본의 형태 중에 사회통제이론 관점에서 가족 내의 사회적 자본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이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의 강도로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Coleman, 1988). 따라서 여기서는 이혼율을 Coleman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이혼은 직접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약화를 통해 가정 내 부모와 자식 간의 애착의 결핍을

낮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지역의 이혼율은 그 지역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혼에 의한 가족의 해체는 비공식적 사회통제수준을 감소시키고 범죄와 일탈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2012년의 이혼율(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을 사용하였다(사회통계국, 2013).

Putnam은 신뢰와 시민참여 정도를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이러한 신뢰수준과 시민참여 정도가 범죄나 일탈의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Putnam, 1993; 1995). 사회의 신뢰수준을 측정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정치적 신뢰의 정도를 나타내는 투표참여율이다(Chamlin & Cochran, 1995; Piquero & Piquero, 1998). 실제로 Putnam의 사회적 자본 개념을 원용하여 사회적 자본과 살인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일련의 연구에서 정치적 신뢰수준의 지표로서 투표율을 사용하였다(Messner, *et al.*, 2004; Rosenfeld, *et al.*, 2001). 여기서는 지역별 국회의 원선거참여대상자 중에 실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로 측정하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대통령선거가 전국적인 정치행사인데 비해 국회의원선거는 지역의 정치적 신뢰수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선거가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더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Chamlin & Cochran, 1995).

그리고 많은 연구에서 빈곤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빈곤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빈곤변수도 중요한 독립변수이다.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측정을 나눌 수 있을 텐데, 이 두 빈곤의 측정이 범죄나 일탈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기존문헌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절대적 빈곤을 빈곤의 지표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절대적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서 2012년에 발간된 '2011년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인구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비 수급 대상자 수의 비율로 측정하였다(보건복지부,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은 2000년 10월1일 부로 구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시행된 제도로서, 기존의 시혜적인 단순보호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종합적 빈곤대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의의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에 있으며, 그 대상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인 만큼, 국민기초생활비 수급대상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계층으로 볼 수 있다.

3) 통제변수

일반적으로 사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변수들을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교육정도(학력)가 사망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기존연구에 따라 교육정도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교육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인구 10만 명당 4년제 미만과 4년제 대학의 재학생 수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매년 수집하는 자료가 아니라 인구 총 조사에서 수집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2011년 자료는 없으며, 종속변수자료인 2012년에 가장 가까운 자료가 2010년 인구 총 조사 때 수집된 자료이다. 따라서 2010년의 인구 10만 명당 4년제 미만 및 4년제 대학에 등록한 재학생 수로 변수를 측정하였다(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11). 그 외에 지역의 총인구, 인구밀도와 성비도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지역

의 총인구수나 인구밀도는 그 지역의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요원인 중의 하나이다. 총인구는 말 그대로 지역의 2012년 총인구수로 측정하였다. 인구과밀의 정도를 나타내는 인구통계학적 지표이다.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주택부족, 주택의 질적 저하,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기능저하 등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에서는 각 시도 정책관리실(2013)에서 수집한 자료로서, 인구밀도를 ‘지역의 면적 1 제곱킬로미터 당 거주인구 수’로 측정하였다. 성별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역별 성비를 사용하였다. 각 시도 정책관리실(2013)의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여자 인구수에 대한 남자 인구수의 비율(백분율)’로 측정하였다.

2. 분석방법

이 연구의 기본적 목적에 따라 사회적 지원과 사회자본이라는 독립변수가 기타 여러 변수들(통제변수)을 통제된 가운데 사망률의 변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주योग설을 검증하기 위한 모델측정을 구성하기에 앞서서 우선 독립변수 값들의 분포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방향, 강도, 선형성(linearity) 등을 점검하기 위해 탐색적 자료 분석(exploratory data analysis)을 시도해 보았다(Turkey, 1977; Hartwig & Dearing, 1979). 산포도(scatterplots)를 통해 선형성과 방향성을 검사해 보았고, 잎과 줄기 도형(stem and leaf diagram), 네모꼴-수염식 도형(box and whisker diagram)을 통해 비대칭적 분포의 정도와 이상점으로 인한 문제점의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모델측정을 왜곡할만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연구모델의 안정성과 민감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회귀 진단법(regression diagnostics)도 사용해 보았다(Berry, 1993; Fox, 1991). 즉 이 연구에서 사용할 자료의 성격을 알아보고 회귀분석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들을 만족시키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OLS 회귀분석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었다. 산포도는 선형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잔차의 이분산성의 존재여부도 확인하였으나 문제가 없었다. 분산팽창계수의 값을 확인할 결과, 다중공선성은 이 분석모델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연구의 주योग설을 검증하기 위해 세 가지 모델이 구성되었으며, 이 모델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Ordinary Least Squares(OLS) 회귀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모델은 사회적 지원이나 사회자본 변수를 제외한 통제변수만을 가지고 분석한 모델이다. 두 번째 모델은 지방정부의 사회적 지원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는 사회적 지원과 주요 통제변수를 모델에 포함시켜 다중회귀분석을 할 것이다. 세 번째 모델은 지방정부의 사회적 지원의 정도는 그 지역의 사회자본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그 지역의 사망률에 영향을 줄 것인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의 사회적 지원과 지역의 사회자본을 모델에 함께 포함시켜서 분석해 볼 것이다. 만약 지방정부의 사회적 지원의 정도가 그 지역의 사회자본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그 지역의 사망률에

영향을 준다면 사회자본 변수를 모델측정에 포함시켰을 경우에도 여전히 사망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야 할 것이다. 아래의 <표 1>은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의 측정방법과 출처를 요약해 놓은 것이다.

<표 1> 변수들의 측정과 기술통계

변수	측정	출처
사망률	인구 10만 명 당 사망 건수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교육비	기초자치단체별 교육비/ 전체 결산비 총계×100(%)	재정고, 지방결산현황, 지방재정연감, 결산편, 일반회계
문화비	기초자치단체별 문화비/ 전체 결산비 총계×100(%)	재정고, 지방결산현황, 지방재정연감, 결산편, 일반회계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기초자치단체별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전체 결산비 총계×100(%)	재정고, 지방결산현황, 지방재정연감, 결산편, 일반회계
사회보장비	기초자치단체별 사회보장비/ 전체 결산비 총계×100(%)	e-지방지표, 통계청조사기획과
기초생활보장비수급자비율	국민 기초생활 보장비 수급대상자 수/ 전체인구수×100(%)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이혼율	인구 1천 명 당 이혼 수	e-지방지표, 통계청조사기획과
투표율국선	각 지역별 실제 투표 참여선거인/ 각 지역별 전체 투표참여 대상 선거인 ×100(%)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20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학력	인구 10만 명 당 4년제 미만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재학생 수	인구 총 조사,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총인구	기초자치단체별 2012년 총인구	e-지방지표, 통계청조사기획과
인구밀도	1㎢당 인구 수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안정행정부 자치제도과
성비	남자인구/여자인구 × 100(%)	인구 총 조사,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IV. 분석결과

<표 2>는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과 이변량 상관관계분석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수인 2012년 한국의 지역별 사망률은 평균 인구 10만 명당 753명이다. 그리고 지역별 사망률의 표준편차는 336명을 조금 넘었다. 지역의 전체 예산액 중에서 교육비와 문화비에 배정되는 비율은 둘 다 1.5%정도였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이하 보건비)에 배정되는 비율은 평균 9%정도이고, 사회보장비에 배정되는 비율은 평균 26%정도였다. 우리나라의 지역별 평균 이혼 건수는 평균 1천

명당 2.21건에 해당되었다. 2012년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지역별 평균 투표율은 56% 정도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4년제 미만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재학생 수의 평균은 4015명 정도임을 알 수 있다.

<표 2>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사망률	1.000											
(2)교육	-.469	1.000										
(3)문화	-.466	.841	1.000									
(4)보건생활개선비	.305	-.129	-.100	1.000								
(5)사회보장비	-.648	.117	.118	-.395	1.000							
(6)빈곤	.767	-.528	-.500	.107	-.322	1.000						
(7)이혼율	-.212	.130	.168	-.037	.026	-.139	1.000					
(8)투표율국선	.544	-.215	-.256	.190	-.363	.348	-.456	1.000				
(9)학력	-.547	.150	.146	-.135	.521	-.353	-.046	-.333	1.000			
(10)총인구	-.692	.404	.478	-.221	.545	-.575	-.002	-.407	.411	1.000		
(11)인구밀도	-.516	.283	.285	-.288	.669	-.405	-.041	-.193	.340	.478	1.000	
(12)성비	-.663	.251	.274	-.048	.200	-.574	.510	-.450	.313	.288	.038	1.000
평균	753	1.50	1.50	8.91	26.45	3.69	2.21	56.01	4015	222K	4030	94.30
표준편차	336	1.25	1.11	2.88	13.16	1.75	.38	5.98	2255	214K	6408	5.30

이변량 상관분석에서 우선 사회적 지원에 해당하는 변수들 중에 교육비($r=-.469$), 문화비($r=-.466$), 그리고 사회보장비($r=-.648$)와 사망률 사이에는 예상했던 것처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사망률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305$). 사회자본의 측정지표인 이혼율과 투표율은 사망률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두 변수 모두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혼율($r=-.212$)은 사망률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투표율($r=.544$)은 사망률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통제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우선 빈곤은 사망률과 정(+)적 상관관계($r=.767$)를 나타냄으로써 예상했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빈곤한 지역일수록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빈곤을 제외한 다른 모든 통제변수들은 사망률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력($r=-.547$), 총인구($r=-.692$), 인구밀도($r=-.516$)와 성비($r=-.663$) 모두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3〉 사망률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N=229)

변수	모델1		모델2		모델3	
	b(β)	p-value	b(β)	p-value	b(β)	p-value
상수	3129.96	<.001	2909.26	<.001	2524.14	<.001
교육			-23.414 (-.087)	.059	-23.658 (-.088)	.051
문화			-4.736 (-.016)	.738	-5.520 (-.018)	.691
보건생활개선비			8.636 (.074)	.005	8.033 (.069)	.088
사회보장비			-7.316 (-.286)	<.001	-6.963 (-.272)	<.001
빈곤	47.125 (.245)	<.001	52.876 (.274)	<.001	50.690 (.263)	<.001
이혼율					69.231 (.078)	.015
투표율국선					5.842 (.104)	.001
학력	-.023 (-.153)	<.001	-.013 (-.085)	.004	-.009 (-.060)	.044
총인구	.000 (-.272)	<.001	.000 (-.164)	<.001	.000 (-.134)	<.001
인구밀도	-.012 (-.220)	<.001	-.002 (-.041)	.253	-.003 (-.054)	.125
성비	-24.573 (-.388)	<.001	-22.013 (-.342)	<.001	-23.203 (-.361)	<.001
Adjusted R ²	.827		.873		.879	

〈표 3〉은 사회적 지원과 사회자본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모델추정의 결과들을 보여준다. 모델 1은 사회적 지원 변수를 포함시키지 않은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빈곤이 사망률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45$, $p<.001$). 이것은 빈곤한 지역일수록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른 통제변수들은 모두 사망률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주었다. 학력은 사망률과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는데($\beta=-.153$, $p<.001$),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총인구($\beta=-.272$, $p<.001$)와 인구밀도($\beta=-.220$, $p<.001$)도 사망률에 부(-)적 영향을 주었다. 총인구가 많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사망률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비($\beta=-.388$, $p<.001$)도 사망률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사망률이 낮다는 의미이다.

모델 2에서는 다른 변수들은 그대로 놔둔 채, 사회적 지원 변수들을 분석모델에 포함시켰다. 분석결과와는 문화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적 지원 변수들은 사망률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교육비는 사망률과 부(-)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beta=-.087$, $p=.059$). 사회보장비($\beta=-.286$, $p<.001$)도 사망률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보여주었다. 교육비와 사회보장비 예산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사망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에 보건 및 생활개선비($\beta=.074$, $p=.005$)는 사

망률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회적 지원 변수들을 종합해보면, 교육이나 사회보장과 같은 사회적 지원이 높은 지역일수록 사망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설 1을 부분적으로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빈곤은 모델 1에서처럼 여전히 사망률에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beta=.274, p<.001$). 보다 빈곤한 지역일수록 사망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밖에 다른 통제변수들은 모델 1과는 비슷한 결과들을 보여주었다. 학력($\beta=-.085, p=.004$)과 총인구($\beta=-.164, p<.001$)는 모델 1에서처럼 사망률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의미했던 인구밀도와 사망률의 관계는 사라졌다. 성비는 여전히 사망률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42, p<.001$).

모델 3에서는 모델 2에서 사용한 변수는 그대로 유지한 채, 사회자본 변수를 추가하였다. 우선 사회적 지원변수 중에서 교육과 사회보장비는 모델 2의 결과와 동일하게 사망률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었던 보건생활개선비는 사망률에 더 이상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 변수의 분석결과는 이혼율과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이라는 사회자본 변수가 사망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나타났다. 이혼율($\beta=.078, p=.015$)은 사망률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변량상관분석의 결과와는 반대이다. 이혼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사망률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투표율은 이변량상관분석의 결과와 유사하게 사망률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beta=.104, p=.001$). 나머지 빈곤, 그리고 다른 통제변수들과 사망률 사이의 관계는 모델 2에서의 분석결과와 거의 동일하였다. 모델 3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가진 변수들 중에서 가장 설명력이 높은(즉 베타 값이 가장 높은) 변수는 성비였다. 남성들이 더 많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사망률이 낮다는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beta=-.361, p<.001$).

V. 토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과 사회자본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사회적 지원을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거시적 지원형태인 공적인 정부지원(state support)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배우자나 가족구성원, 혹은 가까운 친구로부터 제공 되어질 수 있는 미시적 지원은 검증되지 않은 채로 남겨져 있다. 이 연구에서 미시적 지원보다는 거시적인 공적 정부기관의 사회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공중보건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그 영향을 알아보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원은 Cullen(1994)의 주장대로 '사회적 지원은 국가나 사회적 기제(mechanism)를 통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 주안점을 두고 Pratt & Godsey(2002; 2003)가 사용한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사회적 지원 변수를 측정하였다. 또한 여기서의 사회자본은 주로 콜먼과 퍼트남의 개념에 기초하였다. Coleman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 개념(Coleman, 1988)과 Putnam의 상호신뢰와 시민참여(Putnam, 1993; 1995)를 활용하여 한국의 지역단위의 사회자본

이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우선 첫 번째 연구가설은 사회적 지원이나 사회자본의 정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사망률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이었다. 사회적 지원 변수들 중에서 교육비와 사회보장비만이 사망률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화비와 보건생활비는 사망률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 변수들 중에는 이혼율은 사망률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지만, 투표율이 사망률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가설과 반대인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 가설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정부의 일부 물리적 지원(state support)은 사망률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 변수인 이혼율과 투표율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사망률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한편, 빈곤은 사회적 지원변수나 사회자본 변수의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사망률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연구가설은 사회적 지원은 사회자본과 독립적으로 그 지역의 사망률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이었다. 분석결과는 애초에 사망률에 영향을 주었던 사회적 지원 변수들(교육과 사회보장)은 사회자본과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사망률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번째 가설은 지지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전체적인 분석결과를 정리해 보면, 사회적 지원 변수 중에 교육비와 사회보장비는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망이 지역의 교육예산과 사회보장예산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교육예산과 사회보장예산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사망률이 낮다는 것은 사망률이 높은 지역의 지방정부가 교육시설이나 사회보장프로그램 지원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면 그 지역의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빈곤이 사망률에 지속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빈곤한 지역일수록 사망률이 높은 것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이러한 가난한 지역에 교육비와 사회보장비와 같은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총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은 지역일수록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러한 지역이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도시가 아무래도 건강관리를 위한 병원이나 관련시설이나 기구에 접근하는 정도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도시지역 거주자들이 사망률이 낮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지원변수와 관련해서도 교육비와 사회보장비 예산비율도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에서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 거주자들이 상대적으로 공중보건의 위기관리가 더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망률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성비변수에서 남성들이 더 많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사망률이 낮다는 결과를 나타난 것도 남성들 자체가 여성들보다 사망률이 낮아서라기보다는 남성들이 일자리나 결혼 등의 이유로 농촌보다는 도시에 더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대체로 인구학에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평균수명이 높다는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유추적 해석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사회적 지원과 사회자본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이 연구의 결과에 기초해보면, 지역공동체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물리적 형태의 사회적 지원의 정도와 지역공동체의 가족 내 사회자본이 지역주민의 공중보건 관리에 효과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진단을 조심스럽게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일부 사회적 지원이나 사회자본이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아마도 한국사회의 지방정부의 사회적 지원정도나 지역의 사회자본이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진 선진 국가에서는 사회적 지원이나 사회자본이 사회경제적으로 뒤쳐진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는 반면에, 아직 사회복지체계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한국사회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사회적 지원의 정도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관리나 보호해주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 기초자치단체가 예산편성에서 사회적 지원의 정도를 더 높이고 지역의 사회자본을 강화한다면 지방정부가 지역공동체 공중보건의 위기적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공중보건의 위기에 노출되기 쉬운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참고문헌

김상원. 2009. 전환기 러시아의 사회변동과 자살. 한국공인행정학회보. 18(1): 11-44.

김상원. 2010. 사회적 지원과 일탈: 지역단위의 사회적 지원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14(3): 81-95.

보건복지부. 2012. 2011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현황. 보건복지부.

부르디 외, 유석춘, 장미혜, 정병은, 배영 공편역. 2003.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도서출판 그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2012.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11. 인구 총 조사. 서울: 통계청.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12. 사망원인통계. 서울: 통계청.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12. 인구동향조사. 서울: 통계청.

Berry, W. D. 1993. *Understanding Regression Assumption(Sage University Paper series on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 series no. 07-092)*. Newbury Park, CA: Sage.

Brehm, J. and W. Rahn. 1997. Individual-Level Evidence fo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 999-1023.

Bursick, R. J. and H. G. Grasmick. 1993. *Neighborhoods and Crime*. New York: Lexington Books.

Chamlin, M. B. and J. K. Cochran. 1995. Assessing Messner and Rosenfelds' institutional anomie

- theory: A partial test. *Criminology*. 33: 411-429.
- Chamlin, M. B. and J. K. Cochran. 1997. Social Altruism and Crime. *Criminology*. 35: 203-228.
- Chamlin, M. B., K. J. Novak, C. T. Lowenkamp, and J. K. Cochran. 1999. Social Altruism, Tax Policy, and Crime: A Cautionary Tale.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10: 429-446.
-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 95-120.
- Coleman, J. 1990. *The Foundation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ullen, F. T. 1994. Social Support as an Organizing Conception for Criminology: Presidential Address to the Academy of Criminal Justice Sciences. *Justice Quarterly*. 11: 527-559.
- Cullen, F. T., J. P. Wright, and M. B. Chamlin. 1999. Social Support and Social Reform: A Progressive Crime Control Agenda. *Crime and Delinquency*. 45: 188-207.
- Durkheim, E. 1897/1979.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Translated by W. D. Halls*. New York: Free Press.
- Fox, J. 1991. *Regression Diagnostics: An Introduction(Sage University Paper series on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 series no. 07-079)*. Newbury Park, CA: Sage.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 Hartwig, F. and B. E. Dearing. 1979. *Exploratory Data Analysis(Sage University Paper Series on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Vol. 16)*. Newbury Park, CA: Sage.
- Hearn, F. 1997. *Moral Order and Social Disorder: The American Search for Civil Society*. Aldine de Gruyter.
- Hirsch,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awachi, I., B. P. Kennedy, and K. Lochner. 1997a. Long Live Community: Social Capital as Public Health. *The American Prospect*. Nov.-Dec.: 56-59.
- Kawachi, I., B. P. Kennedy, K. Lochner, and Prothrow Smith. 1997b. Social Capital, Income Inequality, and Mortalit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7: 1491-1498.
- Kim, S. W. and W. A. Pridemore. 2005. Social Support and Homicide in Transitional Russia.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3: 561-572.
- Lin, N., A. Dean, and W. Ensel. 1986. *Social Support, Life Events, and Depression*. Orlando, FL: Academic Press.
- Lin, N., K. Cook, and R. S. Burt. 2001. *Social Capital: Theory and Research*.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 MacMillan, D. W. and D. M. Chavis.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6-23.
- Messner, S. F., E. P. Baumer, and R. Rosenfeld. 2004. Dimension of Social Capital and Rates of Criminal Homicid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 882-903.
- Piquero, A. and N. I. Piquero. 1998. On Testing Institutional Anomie Theory with Varying Specifications. *Studies on Crime and Crime Prevention*. 7: 61-84.
- Pratt, T. C. and T. W. Godsey. 2003. Social Support, Inequality, and Homicide: A Cross-national Test of an Integrated Theoretical Model. *Criminology*. 41: 611-643.
- Pratt, T. C. and T. W. Godsey. 2002. Social Support and Homicide: A Cross-national Test of an Emerging Criminological Theor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0: 589-601.
-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 D.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 65-78.
- Rosenfeld, R., S. F. Messner, and E. P. Baumer. 2001. Social Capital and Homicide. *Social Forces*. 80: 283-309.
- Sampson, R. J. and J. H. Laub. 1993. *Crime in the Making: Pathways and Turning Points through Lif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ampson, R. J., S. W. Raudenbush, and F. Earls.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 918-924.
- Sarason, S. 1974. *Th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Prospects for a Community Psychology*. CA: Josey-Bass.
- Tukey, J. W. 1977. *Exploratory Data Analysis*. Reading, M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Unger, D. and A. Wandersman. 1985. The Importance of Neighbors: the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Components of Neighboring.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3: 139-169.

김상원: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2003)하였으며, 현재 동의대학교 법정대학 경찰행정학부에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범죄사회학, 일탈행동, 청소년비행,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정책 등이다. 최근의 발표논문으로는 “러시아의 사회변동과 범죄”(2006), “아동과 청소년비행의 원인비교”(2007), “전환기 러시아의 사회변동과 자살”(2009) 등이 있고, 저서로는 「현대사회와 범죄」(공저, 2007) 등이 있다. 주요경력으로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박사후 연구원(2004),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 Associate(2004) 으로 활동하였다(sangkim@deu.ac.kr).